

함께가는 여성

1997 11



부엌밖세상풍경 수입식품 검역체계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특집 15대 대통령 선거
여성유권자운동의 방향은

 한국여성민우회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1997

11

더불어한결옻픽

나눔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2

부엌밖세상동경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3

특집

여성유권자운동의 방향은 4

여성의 한 표로 정치를 개혁합시다 5

문화마당

우리문화 좋으시고 8

몸과맘

폐경기 여성의 질환 9

상담소

나의 몸은 나의 것 10

팔과함께

나를 제발 좀 그냥 놔두시오 11

환경을살리는오리매

쓰레기도 다시보자 12

정보화광장

민우회 홈페이지로 오세요 13

회원이야기

방아깨비 한 마리, 잠자리 한 마리 14

의정활동보고

세상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15

지부소식

생산지이야기 16

직접 보니 믿음이 갑니다 18

자녀의건강은생명의

김장용 첫걸음 미리 준비하세요 19

알림마당

20

등록번호: 라·6763 · 발행일: 1997년 11월 1일 · 통권: 123호 · 동북일
/1994년 8월 25일 · 발행인: 이경숙 · 편집인: 정대운 · 편집위원: 양
해경, 김자현, 명진숙, 정은숙, 김정민 · 인쇄인: 정종화 · 발행처: 한
국여성생민주회 ·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1층 · 전화: 209-5765-5 · 전승: 209-5766 · 하이텔, 원리인 02-5325

더불어한결옻픽

나눔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정 순 <일하는여성의집> 부관장



열 마전 <일하는여성의집>에 아름다운 사람들, '벚장을 여는 사람들'이 찾아 왔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름을 한 그들이 누구냐고요?

그들은 장애인들입니다. 지난 3·8여성대회에서 여성장애우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권익디딤돌' 상을 받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벚장을 열어둔 지 이미 오래이고, 우리들 마음의 벚장 역시 스크르 소리도 내지 않고 어느새 열어 놓고선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동료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동료가 뒤에서 밀면서 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 모습에 울보인 나는 벌써 마음 가득 눈물이 고입니다만 너무나 밝고 환한 그들의 웃음에 눈물 아닌 웃음이 내 얼굴을 밝힙니다.

진정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그들의 모습 어느 한 구석에서도 어둡고 우울한 빛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을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던 일이 부끄러워집니다.

세상은 옛날보다 살기 편해졌고, 물질도 풍요로우며,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인물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날이 갈수록 소박한 사람냄새(?)는 맡기가 힘들어지고, 불만과 욕심만 난무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라도 앞서 가려 하고, 보다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날로 영악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부유한 생활을 위해 열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자신을 돌이켜 점검해 볼 안으로의 시간도 없어... 오늘날도 여전히 바쁘기만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과 지식, 명예와 권력을 찾아 밖으로 레매일 뿐 이미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한 후에는 같이 도우며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리라' 하는 조금은 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누는 삶을 늦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 산골짜기 개울가엔 살얼음이 얼었다고 하고, 겨울 추위같은 쌀쌀함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 가을의 늦은 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벚장을 여는 사람들'이 보여준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니, 마음 한 곳은 너무 아파 소리없이 울고 있고, 또다른 한 곳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져 이래저래 잠 못 들고 있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인 우리 민우회 회원님들과 함께, 진정 아름답고 귀한 삶은 무엇인지, 정말이지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밤새워가며 이야기라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최 동 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

미 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인 O-157과 식중독 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선감 때문에 서민들의 식탁을 차지해왔던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오렌지, 감귤, 돼지고기, 닭고기 등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6.7%이니, 밥상의 7할 정도를 외국의 농축산물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수입농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건너온 갖가지 식품들의 유해병원 감염 여부를 가려낼 검사·검역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 국민들이 각종 유해병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붉은까지벌레 해충이 발견되었다. 붉은까지벌레는 모든 작물의 잎, 과실, 줄기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나무조차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무서운 해충이다. 그런데 정부는 붉은까지벌레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관리' 병해충이므로 오렌지를 소독하고 붉은까지벌레를 살균한 이후에 통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WTO(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 무역으로 제소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언제까지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가?

호수나 저수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황소개구리 파동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외래어종인 블루힐이나 베스가 팔당호의 새 주인이 된 것도 수산업을 진흥시킨다면서 육영수 여사가 이들을 방생한 결과라고 한다.

무심코 들여온 외래종이 결국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래 병해충 및 악성 가축전염병이 일단 국내에 유입되면 이를 완전히 박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제비용 또한 엄청나다. 주부의 골칫거리인 바퀴벌레 그리고 솔잎혹파리, 벼멸바구미, 흰빛마름병 등이 모두 무심코 들여온 외국 농축산물에 묻어온 것이며 이것들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수백, 수천억에 이르고 있다.

WTO체제에선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되어 이제 통관, 검사, 검역, 투자와 같은 2차 무역장벽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수입농산물 검역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검사·검역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검역은 외래병해충 혹은 인체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침입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데 인체와 관련한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되어 있고 동식물과 관련한 것은 농림부 소관이다. 또한 위생

검사제도의 목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수입식품 및 원료농산물은 농림부 산하 식물검역소에서, 수입동물 및 축산물은 동물검역소에서, 그리고 사료 및 사료농산물은 농림부 및 축협사료검사소, 농진청 축산시험장에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다. 축산물인 경우는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고 가공식품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검역소에서, 수산물의 위생검사는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수입수산물의 위생검사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수출수산물의 위생검사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획일적인 업무 구분으로 인해 일부 업무가 중복되며,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효율적인 검사·검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검역방식은 샘플링으로 육류의 경우 임의로 지정한 수입업체 한두 곳의 시육을 채취해 검사하는데, 전체 수입물량의 13~15% 가량만 정밀검사를 거친다. 나머지 물량은 서류검사와 현물 관능검사만을 통과한 뒤 시중에 방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O-157균을 잡아낸 것도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잡은 식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관광호텔이나 관광외식업체에서 이용하는 육류, 육가공품, 과일류 등 외화회복용 수입식품은 검역도 하지 않고 들여온다.

식품검역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과 지역만을 고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이 도착지 검사·검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검역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미비하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우리의 검역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소위 코덱스의 기준과 합치시켜야 한다. 그런데 코덱스의 규격위원회는 재원을 충당하는 국가가 의장국이 되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중요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식품위생, 가공과실 및 야채, 곡류 및 두류, 잔류동물용 의약품 위원회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다국적 식품기업들도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첨가물이나 잔류농약에 대해 느슨한 안전성 기준을 정해 왔다. 따라서 이 기준과 합치시킬 경우 우리의 검역·검사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통상문제 때문에 현재의 낮은 수준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과는 별도로 소비자운동이 활성화되어 불미스러운 일을 덜고 검사·검역체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여성유권자운동의 방향은

이 경 숙 상임대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유권자들은 어떤 이를 선택할까요?
귀중한 투표권을 가진 우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어디로 어떻게 모을지를 알아봅니다. - 편집자

21 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97년 대통령 선거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 기점이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2위의 무역규모를 갖춘 국가의 위상에 걸맞고 삶의 질을 높여나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

왜 우리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가? 그 해답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도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원수, 행정의 수반, 군의 통수자, 외교의 대표, 입법활동의 주도자, 이 모두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지위이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3권분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도 법률제안권이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각료를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운영의 질서를 민주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통치에서 운영으로

새 시대에 걸맞는 정치철학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당면과제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나라를 '통치' 한다는 개념에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권한행사 양식이 다양한 영역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봉사의 자세가 없이는 나라의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없다. 이제는 세물이의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비전과 정책의 경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군중집회를 대신해 TV토론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였다. TV토론은 후보들의 정책을 한눈에 비교하고 후보들간의 토론을 통해 누구의 정책이 바람직한가를 판별하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것을 보면, 정책에 대한 초보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수많은 토론회를 보내 버렸고, 대선 후보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비춰진 아쉬움이 있었다. 더 잘 팔리기 위해서 내용보다는 겉모양이 매력적으로 포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무엇을 말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한 흔적을 종종 접해야 했다.

그렇다고 TV토론의 부작용을 우려해 TV토론을 폐기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TV토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황금시간대에 후보들을 직접 접하고 부분적이거나 그들의 정책적 소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기존의 정당을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여성유권자들은 각 당의 정책을 평가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하는 등 활동해야 할 내용이 산적해 있다. 여성들의 정치적 구심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시기에 전개되는 다양한 활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 실현되도록 기여하자.

10년 전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온 국민이 총결집한 6월 항쟁은 민주세력의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완성의 민주적 정치과제를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자율적 권력중심의 다원화를 통해 이를 견제하며, 부패의 온상인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여 돈 안 들고 투명한 공정선거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둘, 정책대결의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기존의 정당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이합집산하는 정당을 앞에 두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력논움의 합종연횡을 깨뜨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에 따라 권력이 뒤바뀌게 하는 힘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개발되고, 그 정책내용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민주세력 사이에서 합의된 정책기조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 낮은 정치질서와 관행의 혁신, 참여민주주의의 보장
-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갈등과 패권적 지역정치구조를 혁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것
-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사회 운용기조를 성장과 복지가

아울러 실현되도록 전환시키는 것

- 평화와 공존에 기반하는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의 형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
- 교육, 교통, 환경, 치안 등 삶의 질을 선진화하는 것
- 합리적인 여성정책이 일관된 기조로 강력하게 실행되는 것

셋,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여성운동으로 성장하자.

새 시대의 국정관리는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익적 시민단체가 서로의 역할 분담과 상호보완적 노력으로 민주국가 운영의 내용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사회

가 성숙하지 못함으로써 선진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의 결사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활동을 육성해나가는 것이 21세기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토대이다. 이 토대의 마련과 더불어 시민운동은 이익단체와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신뢰받을 만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선을 맞아 여성단체는 건전한 시민사회 건설에 여성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등불의 역할과 어려움을 대변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여성의 힘이 선진시민사회의 토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한 표로 정치를 개혁합시다!

주부들의 권익향상에 힘쓴 한국여성민우회가 제시하는, 대통령이 주부를 위해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알아봅니다.

각 항목별로 선정 이유를 앞에 제시하고 이어 정책과제를 정리했습니다. - 편집자

주부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활성화

1. 가사노동 평가기준 산정

· 가사노동의 합리적인 산출을 통해 공적 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은 가사노동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보험에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주부의 소득 인정기준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월 613,912원에서 월 687,262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여성 근로연한은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 되었다.

▶가사노동가치의 합리적 산출을 통해 공적 기준에 반영한다는 보험수혜의 기준을 가정주부의 경우, ①모든 취업여성의 평균임금, ②연령·학력별 평균임금, ③남편 소득의 1/2 중 하나를 적용한다.

▶근로연한에 있어서 법정 근로연한인 65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2. 가족법 개정

· 가족법 내의 핵심조항이면서 가부장적인 남녀차별 문화를 유지시키고 있는 호주제도로 인해 인위적인 여아낙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비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비밀리에 진행되는 인공임신중절이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

▶가족법 내 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3.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가사와 육아로 가정에 머물던 여성들의 재취업 및 창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지역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는 취미강좌나 가사에 도움을 주는 교양강좌에 그치고 있다.

· 여성의 재취업 현황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그쳐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여성들이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국제노동기구(ILO) 시간제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가내노동협약과 권고에 따른 가내노동정책 수립 및 보호법 제정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전면 적용

▶여성창업기금 조성

4. 건강한 사회 만들기 참여 활성화

· 여성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보람있는 일을 찾고 있다.

· 환경, 교육, 소비, 방송문화, 지방자치발전 등 생활과제의 대부분이 여성들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 여성들의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그 해결을 위해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 ▶여성자원활동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
-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참여 확대
-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목표 관리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로 지역내 여성인력 활용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사노동 지원

1.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의 질 개선

· 국가의 재정지원이 국·공립시설에 준해서 이루어지므로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 ▶만 5세 아동의 공교육 실시
-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특별한 재정 지원
-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등급화하여 현실성 있게 지원

2.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

· 방과 후 아동이 사교육 시장에 방치되어 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 취업한 기혼여성의 아동들은 방과 후에 유해한 주변환경이나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고 방과 후 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교사인건비를 지원

3.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및 중고교 급식 실시

· 초등학교 급식의 실시로 많은 여성들이 가사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특정업체의 독점현상이나 선정과정에서의 급품수수 등으로 인한 저질의 급식이 제공될 우려를 낳고 있어 급식과정상의 위생문제나 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감과 관련해 고등학교 입시생의 도시락 걱정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 ▶중고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

4. 노인복지의 사회분담

· 노령화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다. 이제까지 노인부양은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담당해 왔다.

- ▶노인부양 및 복지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작성 및 실시
- ▶가정도우미제도 확대

여성복지 확대

1.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효과적인 정책 마련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증가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 ▶민간운영 상담소·보호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학교 성교육의 정규과목화 및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2.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확대

-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생계보조비 증액
- ▶무각출 기초연금제 실시
- ▶장기요양의 의료서비스 시설을 확대설치
- ▶노인들의 취업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3.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여성은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다음 세대의 건강확보와 인구의 자질향상 측면에서도 여성의 질병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가임여성의 산전후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의료보험에서 급여화할 것

- ▶여성관련 암 진찰시 의료보험 급여화
-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여성의 건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보건 서비스체계 확립

4. 편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 현실화 및 정서적 지원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호대상 편부모가정을 보호대상 선정

▶현재 성차별적 관점에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보호대상 기준과 지원내용이 동일하도록 개정

▶자녀와 관련된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완화하고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

5.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 확보

▶모든 여성의 노후생활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인 1연금 체계인 기초연금을 도입

▶전국민 연금확대시 전업주부에 대하여 임의가입이 용이하도록 현행보험료를 6%에서 3%로 하향조정

▶가입자의 연금소득을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식하여 이혼시 피부양 배우자에게 연금분할수급권 인정

민생과제의 선진화

1. 물가안정

· 정부의 통계를 보면 한 자리 숫자이지만 실제 체감되는 물가상승률은 두 자리 숫자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생활필수품의 물가상승률 지수를 별도조사 후 발표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활필수품의 가격 안정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
-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2. 식품의 안정성 확보

·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이 발견되면서 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농축수산물 수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입농축수산물의 식품오염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검역관 파견제 실시나 선검역 후통관으로 철저한 검역체계 확립

▶국민건강을 지키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구성

▶유해식품업체 처벌 강화

▶우수한 농축수산물 생산 지원

▶철저한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

3. 생활속의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및 감량화 촉진에 관한 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체계 마련

▶물관리 일원화로 안전한 수돗물 제공

4. 교육제도 개혁 및 사교육비 경감

·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희생자는 청소년과 자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여성들이다.

· 6대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8%가 과외를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54,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교육의 일차적 영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전면개혁

5. 학원폭력 및 유해환경 근절

·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폭력물, 성상품화, 음란매체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면서 학원폭력의 증가와 왜곡된 성의식 및 성행동이 만연해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 마련

6. 향락문화개선

· 날로 번창하고 있는 향락산업은 가정을 파괴하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강력한 집행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여성신문사가 주최하는 여성정책토론회에 초청된 15대 대통령후보들(가나다순)

우리문화 종을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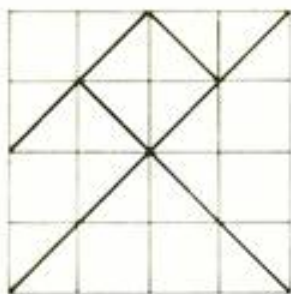
「함께가는여성」 편집실

쌀 쌀한 바림이 불면서 집안에 가족들이 웅기종기 모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따뜻한 분위기에 어울릴 만한 우리 민속놀이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각마이 있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에 더욱 아껴 할 것들입니다. - 편집자

<칠교놀이>

우리나라에서 '칠교판(七巧板)-7개의 교묘한 판' 또는 '유객판(留客板)-손님을 머물게 하는 판'이라 하여 오래 전부터 유행되어온 이 놀이는 우선 사방 10cm쯤 되는 나무판(종이나 형질을 이용해도 좋다)을 그림처럼 직각삼각형 큰 것 2개, 중간 삼각형 1개, 작은 삼각형 2개, 그리고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이 각각 1개가 되도록 잘라낸다.

이렇게 잘라낸 7개의 조각으로 사람, 동물, 식물, 글자 등 여러 모양을 만든다. 여럿이 경쟁을 벌일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에 상대방이 지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이 되면 차례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며, 조각은 반드시 7개를 다 써야 한다. 이 놀이는 어린이들의 사고력, 상상력, 조직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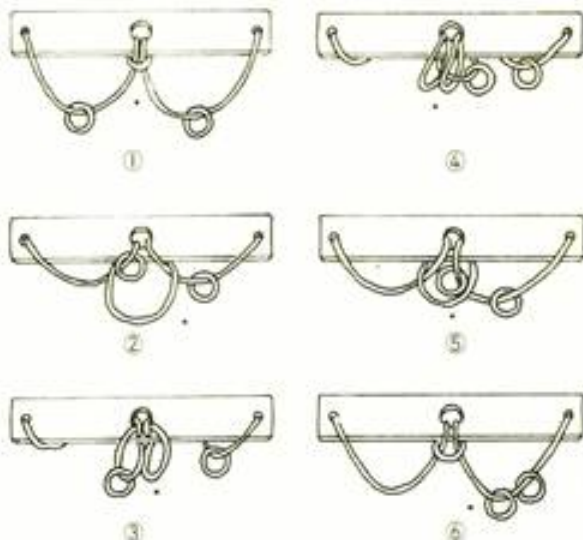
<유객주>

유객주(留客珠)는 손님을 머물게 하는 구슬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이나 관청 등에서, 찾아온 손님을 주인이 기다리게 할 경우 손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다과와 함께 내놓았던 심심풀이 놀이개이다.

유객주는 한 쪽 끈의 고리에 있는 구슬을 다른 쪽 끈의 고리로 옮기면서 노는 기구이다. 유객주를 만들 때에는 길이 15cm 가량의 합판이나 골판지, 직경 3cm 정도의 고리나 구슬 2개, 그리고 60cm 가량의 끈이 필요하다. 준비한 판지의 양 쪽에

작은 구멍을 뚫고, 중앙에 끈 4개 정도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그런 다음 끈에 고리 2개를 끼우고 그림1처럼 판지 위에 끈을 고정시키면 유객주가 완성된다.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그림1과 같이 매듭 *이 앞으로 오도록 막대를 잡는다.
- ②막대의 가운데에 있는 매듭 *을 잡아당겨 구슬이 통과할 정도로 넓힌다(그림2).
- ③왼쪽 구슬을 넓혀진 매듭 안으로 통과시키고, 가운데 *2줄을 함께 당겨 구멍 뒤에서 2개의 새로운 매듭이 나오게 한다(그림3).
- ④계속해서 왼쪽 구슬을 가운데 구멍의 새로 생긴 2개의 매듭 안으로 통과시킨다(그림4).
- ⑤막대의 뒤편을 보면 구멍에 4줄이 들어 있다. 그 가운데 2줄을 잡아 당기면 뒤편에 새로운 매듭 *이 나온다. 이 매듭 사이로 다시 한 번 구슬을 넘겨 보낸다(그림5).
- ⑥오른쪽 줄과 왼쪽 줄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잘 매만진다(그림6).
- ⑦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역순으로 진행해 구슬을 옮긴다.



<다리세기>

이 놀이는 어린이들이 두 줄로 마주 앉아 서로 다리를 엇갈리게 뺏고서 노래에 맞추어 다리를 세며 노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행해지며 주로 겨울철에 방 안에서 많이 한다.

놀이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노래에 따라 다리를 손바닥으로 짚어가다가 노래 마지막 마디를 부르고 '땡(공 또는 땡)'을 하려는 순간 미처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면 지게 되고, 날세게 오므리면 다음 다리 어린이가 지게 되는 놀이이다.

둘째, 다리를 세어가다가 '땡'에 해당하는 다리를 오므리고 노래를 계속 부른다. 이를 몇 번 거듭하는 사이 먼저 두 다리

를 모두 오르면 사람이 이기게 되고, 마지막 다리 하나가 남았을 때에는 다리와 방바닥을 번갈아 짚어가면서 새어가는데 '땡'이 방바닥에 해당하면 그 판은 무효로 한다. 마지막으로 다리가 남은 사람이 풀쩍이다.

이 놀이를 할 때에는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는데 지방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하늘때 두알때 상사 노구리 온다지 꽃다지 바람에 날리는
취새~끼(하면 다리를 뻗는다) ♪

<그림자놀이>

전기불이 없던 시절, 등잔불이나 촛불로 밤을 밝혀가며 형제와 이웃 아이들이 모여앉아 이 놀이를 한다. 손으로 갖가지 모양을 지어 벽에다 비추어보면 벽에는 손의 모양에 따라 개, 토

끼, 사람 등의 모습이 그림자로 나타난다.

이 놀이는 1920년대까지는 절이나 그 근처 마을에서 연등일(4월 초파일)에, 주로 승려의 주관에 의해 불교 포교의 수단으로 행해졌다. 인도에서는 '손가락예술(Finger art)'이라 하여 전문적인 수련을 쌓은 예능인들에 의해 행해진다. ◎



* 이 글은 「우리나라 민속놀이」(심우성, 동문선, 1996)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몸 과 맘

폐경기 여성의 질환

여성의 건강조건을 신체조건에 비추어볼 때 크게 아동기, 사춘기, 성년기, 그리고 폐경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특히 폐경기는 여성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더 이상 난소에서 분비되지 않는 시기로 난소라는 장기가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는 때이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난자가 다 소모되고 여성호르몬이 더이상 분비되지 않는다. 폐경기의 증상은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에 걸쳐 나타난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연령이 75세이므로 50세 이후의 폐경기를 25년 이상 지내는 셈이다.

그런데 폐경 이후의 건강상태는 그 전에 얼마나 대비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 폐경 이후의 노년여성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비책도 필요할 것이다.

보통 폐경기에 심리적으로는 '빈둥우리 증후군'이라고 일컫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떠나가고, 부부 사이가 예뻐하던(!) 시기가 지나면 빈둥우리만 남아 나는 무

엇을 위해 살았나, 왜 살았나' 하며 자아정체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 때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고 아울러 심리적인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대표적인 증상을 보면, 우선 뇌에 미치는 영향으로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여 우울증, 건망증, 판단력 감소 등이 나타나는데 우울증이 심하면 울고 싶은 심정이 된다. 자율신경계 증세로는 안면홍조와 발한이 있다. 갑자기 얼굴과 목이 후끈거리는가 하면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기도 한다.

밤에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이불을 겹쳐치우게 되며 불면증이 생기기도 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질적이 되고, 머리 압박감이나 두통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성교를 할 때 성교통이 생겨 두려워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요의를 느끼지만 실제 소변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는 모두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회음부와 방광의 점막이 약해져서 생기는 증상이다.

장기적으로는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

고 경 심 단국대학교부속병원 산부인과

이 생긴다. 우리나라 강원지역의 조사에 의하면 25%의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뼈의 칼슘성분이 녹아서 뼈의 강도가 매우 낮아지므로 가벼운 타박상이나 넘어짐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기도 쉬운 조건이 된다.

이런 질환들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중 하나가 운동이다. 폐경기 이전에 규칙적인 운동(자신의 신체와 여건에 맞는)을 매주 2회 이상 20~30분 이상 하는 것이 골다공증도 예방하면서 폐경기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채식과 함께 칼슘 보충을 위한 식사를 습관화한다.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적절한 호르몬요법치료를 받는 것도 해결책 중의 하나이다. 이 때 적절한 검사와 함께 정기적인 진찰도 물론 필요하다.

인생이 60부터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를 위해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만큼 좋은 것이 없다. ◎

나의 몸은 나의 것

김 인 아 대일외고 1학년

10월 25일 오후 3시 대하로. 나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제가 있으니 친구들과 함께 꼭 참석하라는 엄마의 엄명을 받고 그곳에 갔다. 엄마는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하는 좋은 행사니까 남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오라고 하셨다. 며칠 전 엄마가 미리 알려주신 행사내용을 보니 '남자와 여자의 성, 뒤집어 생각해 보자'라는 제목의 행사였다. 제목이 특이하여 관심은 있었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남학생들과 같이 오라는 말씀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같은 반의 남자아이들에게 성(性)과 관련해 어찌구 저찌구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 날 만큼은 학원을 가지 않아도 좋다는 엄마의 공식적인 허락과 함께 특별 용돈까지 받아들고서, 학교 끝난 후에 미리 쇼핑백에 싸가지고 간 사복으로 갈아 입고서 대하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갔다. 행사는 3시에 시작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우리는 조금 늦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 날은 춥고 비까지 조금씩 오고 해서, '뭐 별거 아닐 텐데, 괜히 가나?' 했는데 가보니 뜻밖에도 마로니에 공원 공연장에는 나와 같은 청소년 아이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나와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모두들 앞에 크게 그려진 퍼즐판을 보고 사회자의 설명에 따라 열심히 퍼즐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오렌지보이', '이성교제' 등은 잘 맞추었지만 '미혼부',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은 낯설어서 그런지 잘 맞추지 못하였다.

자원봉사자라는 도우미언니들이 공연장을 돌아다니며 주는 상품까지 곁들인 퍼즐게임이 끝난 후 노래가 몇 곡 이어졌고, 극단 <별자리>에서 준비한 싸이코드라마가 진행되었다. 드라마는 늦은 밤까지 집에 가지 않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남학생

과 여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이성 친구를 사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입장을 바꿔 남학생은 여자가, 여학생은 남자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재미있었던 것은 관중석에서 갑자기 뿔뿔히 나온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떤 남학생이 역할극을 아주 잘 한 것이다. 늦었으니 집에 가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그 남학생은 뻔뻔스럽게도 뭐, '열쇠가 없어서 집에 못간다'나? 그래서 어찌자는 것? 우리는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뛰니뛰니 해도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역시 고등학교 남자아이들로 구성된 댄스 그룹 '비라클'의 공연이었다. 나는 조금 늦어서 보지 못하였는데 처음 행사를 시작할 때에도 보라매 청소년회관의 풍물팀 '비나리'의 공연에 이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댄스공연이 있어서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비가 흘러 들어와 공연장 바닥이 꽤 젖었는데도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사장 바깥에서는 '내몸의 주인은 나'임을 다짐하는 증서에 서명작업이 진행중이었다. 넓은 판에 준비된, 올바른 성의식과 관련된 전시물들을 보고 자기 몸의 주인임을 다짐하는 서명을 하면 예쁜 증서를 주었다. 우리같은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아줌마, 어린 꼬마들도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 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 나는 내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 나는 나의 느낌과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다!
- 나는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한 것을 책임질 줄 안다!
- 나는 나를 조절할 수 있다!

전시물에는 상담소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둘러 보며 "응, 정말 저래", "난 아니야" 하며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기회를 주었다. 사실은 엄마가 오라고 해서 억지로 참가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내몸의 주인은 나'라는 서명을 하는데 왜 남자아이들은 잘 하지 않고 여자아이들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까? 오히려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이런 서명작업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

나를 제발 좀 그냥 놔두시오

현 일 속 회인

“**‘엄마’**라고 아세요?” 얼마 전 전화상담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들려온 여중 2학년생의 말이다.

나는 “그럼, 알지.”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함으로써 “제가 왕따거든요.” 하며 이어진 그 학생의 다음 말을 순조롭게 들을 수 있었다. 아마 그 학생은 내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준비가 된 어른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전 이제 갓 고등학교를 벗어난 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그 학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학생의 엄마는 자기가 학교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왕따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나는 그 여중생의 하소연을 “그렇겠구나!” 하며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그 학생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는 딴 짓 하지 않고 그 시간 수업에 열중하고, 쉬는 시간에는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니 나 역시 아이에게 말로써 상처를 입힌 적이 많았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상처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너무 많은 것을 담아 보려고 애를 쓰다가 내 마음을 받아 주지 않은 아이에게 화가 나고,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허탈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의 문제였지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엄마라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편이 될 수 없으니...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엄마로서 도(도)를 닦아가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딸아이와 나눌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민우회 생협에서 일을 할 때 겪었던 것들에 대해, 또는 다른 곳에서 듣고 공부한 것들에 대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유기농산물, 환경문제, 나아가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우리는 늘 주변생활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 노력 덕분에 나는 그들 또래끼리 통하는 말이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이의 ID로 PC통신을 하려고 비밀번호를 물었더니 175163이라고 한다. “무슨 번호가 그리 복잡하니? 외우기도 어렵고.” 하는 내 말에 아이는 “얼마나 쉬운데, 마이클 창(테니스 선수) 키와 엄마 딸의 키.”라며 깔깔댔다. 시험 때라도 마이클 창이 있다면 스타TV를 틀어놓고 열심히 응



딸과 함께한 여행중에...

원을 해낸다. 그런 아이에게 “아유, 저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잠이라도 자는 게 낫지.” 하는 심은 소리를 하지 않고 “나 먼저 잔다.” 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다 도덕음의 결과였을까?

내가 한 술 더 떠서(?) 신문과 잡지에서 마이클 창이 기사나 사진들을 오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건네주면 교복도 벗지 않은 채 주저앉아 그 기사를 다 쟁거 읽는다. 논술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나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시사적인 기사들도 오려서 스크랩해 주지만 그것은 항상 뒷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딸아이와 항상 대화를 한 덕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학교 성적이나 입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상처 입힐 만한 말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싶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래도 입시생인데 아이한테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좀머씨이야기』에서 좀머씨가 되뇌던 말, “나를 제발 좀 그냥 놔두시오”를 이 원고의 제목으로 선택해 주었다. 그 책이 작년 8월 즈음 중고생을 덕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실을 인터넷에서 뵈아 보여주더니 “그래도 엄마들은 ‘그냥 놔둘 만 해야 놔두지’라고 할거야.” 하며 웃었다.

어머니 노릇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우리 현실을 빗댄, 죽은 후에 심판 받는 것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오른다.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대한민국에서 ‘어머니’로 살았소.”

“그래? 애썼다. 너는 천당이다.”

이 치면은 회원 여러분의 글로 채워집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고 생각하신 것들을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편집자 -



환경을 살리는 요리대회

쓰레기도 다시 보자

김 형 태 환경담당간사

음식물 하나라도 그냥 버리지 말자. 수박이나 귤 등 다 먹은 과일의 껍질도 훌륭한 요리재료가 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건강먹거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을 살리는 요리대회'가 지난 9월 28일 양천구 과리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요리대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이 때,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요리과정 중의 쓰레기 최소화, 요리 후 남은 음식 재활용, 건강먹거리 등 요리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을 살리는 요리방법을 주부들이 직접 찾아 나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참가한 주부들이 직접 개발한, 기발한 요리솜씨를 뽐냈는데 이날의 심사는 환경친화성이 우선 고려되었다.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재료를 사용했는가, 재료나 연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 쉽고 참신한 방법인가, 맛과 영양소는 갖췄는가,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은 최소화했는가, 수질오염의 문제는 없는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학자 오숙희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요리대회에서 대상은 '수박껍질을 이용한 말이'를 선보인 임영숙씨(65세) 가족이 차지했다.

수박의 속껍질을 다양하게 활용, 멋진 술안주용 말이를 만들어 낸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장아찌를 만들어 저장식품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요리에 쓸 수 없는 겉껍질은 잘게 다져 산책길에 비둘기모이로 주어 쓰레기처리까지 완벽했다.

감람상은 알뜰한 살림꾼씨가 빚낸 '복어장떡'을 개발한 김미경씨(35세) 가족이 차지했는데 독창적이며 간편한 요리방법과 균형잡힌 영양소가 수상에 일조를 했다는 평이다. "복어를 국에 넣고 남은 부 분이 문제였는데 가루로 만들어 장떡을 만들었더니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는 김씨의 설명에 심사위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흔히 버리는 귤껍질을 이용하여 쟁과 정과같은 향기로운 간식을 만든 이상령씨(38세) 가족은 재활용상을 받았다. 생협 공동체에서 인연을 맺은 지 불과 2개월이지만 무공해농산물을 함께 사서 나눠 먹으며 쌓은 정과 믿음은 친동서간 못지 않다며 같이 참가한 김효순(44세) 회원은 "우리 생협에서는 직거래를 하다보니, 생산자들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나 품질을 서로 속인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죠, 생산지인 제주도 귤농장에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안 이후로 귤껍질조차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말려서 차를 끓여먹어도 좋지만 즉석에서 살짝 데쳐 묽은 맛만 없애고 설탕에 조려 봤죠," 라고 생협

자랑을 잊지 않았다.

건강식이면서도 적은 돈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토란들깨탕'을 만든 유정렬씨(75세) 가족에게는 건강먹거리상이 돌아갔다. 며느리인 정정희 회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참가했다는 유씨는 구경은 사람들에게 토란들깨탕을 맛보이며 마냥 즐거워하면서, 상까지 받게 되어 며느리가 자랑하던 민우회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특별상인 가족단란상을 받은 서인자씨(38세)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냉장고에 먹다 남은 김치나 자투리아채, 맛이 없게 된 사과 등으로 '사과부침'과 '김치볶음치즈덮밥'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수상가족은 모두 무농약팥을 부상으로 받았다.

이 날 심사는 박영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이금라 서울시 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 연기자 이정섭씨, 조혜선 푸르게사는모임 회장, 서정옥 서정쿠잉아카데미원장, 그리고 박영숙 민우회 이사 등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수박껍질이 무슨 반찬이 되냐고요?

임영숙씨의 대상 수상은 우연이 아니다. 평소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주방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유독 많았기 때문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쓰레기봉투값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란다. 이번에 상을 받은 수박껍질요리는 결코 '대회용'이 아니고 이미 2년 전부터 임씨 가족식탁의 정구예비(!)이다.

"여름에 수박을 먹고 나면 부피가 큰 수박껍질이 늘 골칫거리잖아요. 그동안은 썰어서 마당에 심어 놓은 배추, 고추, 파 등에 거름으로 사용했어요. 어느 날 무말랭이를 만지다가 수박껍질은 반찬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삼아 장아찌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시식을 하게 했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반찬이 되냐"면서 의구심을 갖던 가족들도 완성된 요리를 먹고는 "훌륭하다"며 맛있어 했고 이에 힘을 얻어 말이도 해보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보는 등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 쓰레기도 줄고 그 쓰레기에 물리던 파리같은 벌레도 차츰 사라져 부엌도 위생적으로 변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을 보면 음식낭비가 심한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필요한 재료만을 사서 약간 모자라다 싶게 음식을 만들고 밑반찬을 준비해두면 부식비용이 주는 것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임씨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보호를 위해 좀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며 "나의 조그만 관심이 환경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



민우회 홈페이지로 오세요

정 은 숙 총무

“어 어~, 뜬다. 떠!” “어디, 아무것도 없구만.” “여기 말야, 그림이 조금씩 보이잖아.”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뜨는 거야? 인터넷 고속망이라면서.” “급하거든. 봐, 벌써 1/3은 떴다.”

그리고 조금 후(다른 이들은 한참 후) 민우회 홈페이지는 17인치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우며 떠오르고야 말았다. 일출을 보면 그 붉은 태양의 모습에 숙연해지듯이, 태양처럼 천천히 떠오른 민우회 홈페이지는 많은 생각을 교차하게 했다.

정보사업을 시작한 이후 민우회 홈페이지가 빨리 개설되어야 한다는 생각, 알찬 내용과 예쁜 모습으로 민우회 얼굴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정보실 사람들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소근 소근 의견을 나누기도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달라 소리소리 지르며 다툼 적도 있었다. 기술적 측면은 물론이고 예술적 감각도 결합되어야 하는 홈페이지 제작. 초보자인 우리로서는 너무도 벅찬 작업이었다. 다른 홈페이지도 기웃거리고, 잘된 홈페이지는 인쇄를 해 차곡차곡 모아놓기도 했지만 막상 실천에 돌입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뻔했다. 기초적인 포토샵(그래픽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을 이용한 작업, 나뭇 프로그램(홈페이지 제작을 돕는 소프트웨어)을 이용한 작성법, 여기저기에서 모은 아이콘(컴퓨터에 있는 조그마한 그림들) 붙이기 등.

밤을 새워 정보를 가공하던 일, 포토샵 사용법이 서둘러 전문가에게 수없이 문의하면서 보냈던 그 술한 날들. 그런데...

“무슨 홈페이지가 이렇게 촌스러워!” 너무 산만하지 않아? 내용 정리가 안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디자인이고 뭐고, 예고고.” 등의 비난(?)이 여기저기서 마구 쏟아졌다.

그렇다. 객관적으로 민우회 홈페이지는 참으로 못났다. 다양하기로 이름난 민우회 사업 전체를 한번에 다 보여주려니 구성도 부처 산만하다. 우리 회원들이 민우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처음 느끼는 감정은 실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우회 홈페이지는 그 개설만으로도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갖는다. 정보공간,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비불균형은 매우 심각해서 남성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니 올바른 여성관련 정보를 찾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이치. 그나마 있는 여성관련 정보도 대부분 소비품토를 조장하거나 허구적인 미의식을 유포하는 등 상업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우회가 통신공간에 들어서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에 주부와 직장여성들에게 좀더 유익한 정보, 평등한 가치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건강한 정보들이 유통되게 하기 위해, 나아가 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작은 싹을 하나 피운 것이다. 비록 그 시작은 소박했지만 결실은 알차게 만들기 위해 지금도 정보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민우회 홈페이지, womenlink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도구로서, 민우회 홍보의 일등공신으로서 우뚝 설 날을 기대해도 좋다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촌스러움과 서툰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

민우회 홈페이지의 내용

	내 용	특 징
기본정보	민우회 소개 행사안내 Women News 흔적 남기기·묻고 답하기	민우회, 생활협동사업부, 가족과 성 상담소, 일하는여성의집, 고용평등추진본부, 각 지부 등을 소개 민우회의 최근 행사 소식 여성계 핫이슈 소개 방문자 자유 게시판
성/문화정보	성/성폭력/가족상담 노동상담 매체모니터 고발합시다	성폭력 상담사례 및 가족 상담사례소개 등 직장내에서의 성차별 및 부당 대우 상담 등 TV나 신문 등 매체에서 여성관련 모니터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매체를 비판 하는 공간
생활정보	바른먹거리 정보 여성과 건강 우리손에 지구가 있어요 자녀/주부 교육프로그램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보, 요리, 먹거리 소개 여성에게 유익한 건강정보 생활속의 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각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소개
노동정보	일터에서 함께 크는 아이·가벼운 출근길 미래를 만드는 여성 평등의 눈으로	직장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에피소드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육아관련 정보 여가활동과 생활속의 여성학 고용불평등 고발사례
여성정보실	지역정치/노동/환경/복지/상담/인권/기타	여성관련 자료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DB제공

• 민우회 홈페이지 주소 <http://www.womenlink.or.kr> • 메일 보내는 곳 webmaster@womenlink.or.kr

방아깨비 한 마리, 잠자리 한 마리

권혁란 회원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가을바람이 그리웠다. 머리속은 복잡하고 가족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잘되지는 않고, 잠시 창밖을 보면 하늘은 높아져서, '깨끗해져라, 맑아져라' 말하는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생협이 소식지에서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메뚜기잡기대회)'가 10월 5일에 홍성에서 열린다는 광고를 보았다.

갯잎, 굴, 오징어 등 배달된 물품을 쌓아놓고 각자 신청한 것을 챙기다가 우리 일행은 순식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보내고 의기투합하였다.

일요일에는 최소한 10시까지자는 자야 하는데 6시 40분까지 출발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한 번 부지런을 떨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서 마침내 10월 5일 새벽, 이 일을 어찌면 좋을지..., 눈을 뜬 시간이 6시 45분, 초인적인 신속함으로 사당역을 향해 출발! 눈충을 받으면서 못 떠나면 이 원방을 어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사당역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 우리 일행이 2등이었다(일찍 나온 순으로). 출발하는 차안에서 군데군데 앉아있는 다른 집 남편을 보면서 작은아이를 돌보거나 잠을 자고 있을 아이들 아버지를 잠시 생각해 봤다.

차에서 민우회 10주년 기념 비디오를 보면서 '엄마, 저 아저씨는 남잔데 왜 여성민우회야?'라고 묻는 6살 난 딸에게 민우회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간식을 먹다보니 홍성이 가까워졌다. 홍성(충무농업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생각보다 사람도 꽤 많았고 민우회 생협뿐만 아니라 다른 생협의 회원들도 모여 있었다. 군데군데 천막이 쳐지고 현수막이 나부끼는 가운데 풍악소리는 가을하늘을 가득 채웠다. 우선 식사부터 했는데, 각자 집시를 들고서 생산자들이 준비하신 떡, 밥, 고기, 과일, 달걀, 술(구기자 동동주) 등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 천막 아래 먹을 것을 잔뜩 놓고 둘러앉아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술을 권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상스런 친화감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과일에 떡을 들고서 부러울 게 없다는 듯이 넓은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마음도 몸도 풍요로운 상태로 풍악을 울리며 모두들 메뚜기잡기에 나섰다. 이미 벼를 베는 논에 수백 명이 들어가 메뚜기를 잡았으니 많지도 않은 메뚜기들이 '웬일인가?' 싶었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환성이 울리자 메뚜기 한 마리 못잡는 엄마를 원망스레 바라보는 아이에게 핀가를 보여 주려고 눈에 물을 켰다. 드디어 풀썩 뛰는 작은 곤충 하나가 눈에 띄었다. 몇번의 손놀림 끝에 마침내 잡은 한 마리! 의기양양하게 아이에게 넘겨주

고, 풀을 뜯는 흑염소 등을 쏘어주고, 날아 다니는 고추잡자리도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운동장으로 돌아왔다.

메뚜기를 많이 잡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시간, 아이고 맙소사! 일행이 힘을 모아 잡은 메뚜기는 고작 7마리. 게다가 내가 메뚜기로 알고 잡은 단 한 마리의 곤충은 메뚜기가 아니라 방아깨비라는 것이다.

홍겨움 속에 이어진 대동놀이 한마당,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소개되었고 우리들의 힘찬 박수가 이어졌다. 굵은 손마디의 그분들과 도시에서 온 흰 손의 소비자들 팔씨름을 했으며, 허수아비 만들기, 청둥오리 물기, 일륜차 끌기 등이 있었다. 다소 무질서하기도 했지만 이리저리 정신없이 몰려다니면서 일체감을 맛본 좋은 시간이었다. 가을해가 설핏 기울 무렵 모두 모여 지신밟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가을의 축제가 끝났다.

생산자들이 주신 먹거리를 나누며 돌아오는 길, 하루의 피곤으로 아이들은 잠이 들었다. 달리는 차안에서 서로의 느낌을 나눌 때, 메뚜기가 적어서 신명이 덜했다는 말에 벼를 베지 않은 논에는 메뚜기가 많은데 혹시 벼를 다치게 될까봐 수확이 끝난 논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 있었고, 우리들의 먹거리가 생산되는 논과 밭에 직접 가보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틈틈이 무농약 포도와 무방부제 과자 등을 나누어 먹었는데,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입맛에는 약간 밋밋한 감도 있지만 먹을수록 깊은 맛이 났다.

나는 사실 생협에서 야채와 과일, 밀반찬 등을 구입해 먹으면서도 아직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 생각 때문에 마음 한 쪽에 부담이 있었다. '나 혼자만 좋은 것, 깨끗한 것을 먹겠다고 생협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혹 이기적인 보신주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많았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조금 손쉽게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은 땅에 농약을 끼었졌을 것이고 생산되는 모든 과일들은 방부제로 목욕을 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내 가족에게 좋은 걸 먹이겠다는 생각만으로 생협에 가입했더라도 서서히 유기농법에 대해 알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모여 올바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게 된다면 무얼 더 바라겠는가? 피곤한 와중에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왜 생협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던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 아주 귀한 여행이었다. ☺

세상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김 정 민 『함께가는여성』 편집간사

민 우회 회원들의 힘찬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 군포에서 그야말로 이곳저곳 발로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군포시의회 김영숙 의원. 그동안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소개했던 민우회 출신 의원들이 모두 그러했지만 김영숙 의원도 일독심 많고 부지런하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 같다.

“군포시에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가 지난 93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24차례에 걸친 시민결기대회에 집행위원으로 결합해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소각장 건설이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노력했습니다.”라고 최근의 활동을 소개한 김영숙 의원은 소각장 문제가 워낙 첨예한 대립을 낳아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한때 수천 명의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구1소각장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없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다. 그런데 군포시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 분지라는 지역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더욱 문제라고 한다.

“군포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공간인 수리산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100억을 들여가며 터널공사로 산길을 훼손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데 일부언론에서는 주민들의 활동을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부치고 있으니 섭섭하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기 그지없던 자신이 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정치를 하는 것이 가끔 스스로도 놀랍다는 김영숙 의원. 주민들의 건강한 목소리가 모아져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민우회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아주 작은 단위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의 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낳기도 합니다. 아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굴절이나 막힘없이 위로 올라가고, 양식있는 전문지식인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군포시의 경우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중앙정치의 악습인 지역할거주의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눈을 좀더 크게 떠서 작은 이익이 아닌 ‘공익(共益)’을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라고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을 밝힌다.

공교롭게도(?) 의회와 집이 워낙 가까워서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밤낮없이 의회와 집을 넘나들고 있다는 김영숙 의원은 알고보니 고3 수험생 딸이를 두고 있다.

고3 엄마로서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힘들지 않는

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고3이다보니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 얼굴 보기도 힘들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에는 의회 일에 전념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지요. 아닌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가꾸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다는 김영숙 의원. 그런 이치로 보면 지역살림에 주부들 아니면 누가 나서겠냐고 한다. 내 자녀, 내 가정만이 아닌 세상을 품는 어머니들이 되자는 다짐으로 이해되었다.

의정활동의 전반기에는 총무위원회, 후반기에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속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김영숙 의원은 남성, 여성 구별없이 ‘바른 정책’ 한 가지만을 위해 함께 땀흘린 동료의원들이 있기에 마음 든든하다고 한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 여성의원들의 복리후생문제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의회가 남성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서인지 화장실을 비롯해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안이 많이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정책실명제, 시민옴부즈맨제, 시민감사청구제 등을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다.

아직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만족스러운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김영숙 의원 자신도 가정밖에 모르던 평범한 주부였고, 여성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점 등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지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모으고 싶지만 아직은 기반이 부족해 모든 것을 혼자 꾸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김영숙 의원은 몇 명 안되더라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민우회원들이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말한다.

장애우들의 복지향상에도 관심이 많은 김영숙 의원은 영락없는 지역살림꾼이다. ☺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현장감사에 나선 김영숙의원



서울남부여성민우회 ☎ 557-1983

환경강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찬 바람이 제법 겨울을 느끼게 하는 늦가을입니다. 회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요즘 안녕하십니까?

지부에서는 지난 10월 19일에 운영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본부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월 23일에 열렸던 환경강좌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님도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특히 교육장이 민우회의 <일하는여성의 집>이라서 더욱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11월 8일과 9일에 정회원 워크샵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다른 지부의 회원들도 사귀고 민우회에 대한 사랑도 다지시면 좋겠네요.

두 달 남은 97년은 회원님들과 산행도 하고 문화기행도 하면서 여유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일하는여성의 집>에서도 항상 유익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니 지역적으로 가까운 우리 지부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새로 출발한 미디어운동본부에서도 비디오촬영기법, 모니터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세상살이입니다. 열심히 된 만큼 보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혜영 지부 대표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643-1253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회 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한복판에서 지난 한 달간의 지부살림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10월 5일에는 유기농 생산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홍성 '가을걷이 나눔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은 우리 지부에서 마흔일곱 분이나 참여해 오랜만에 즐거운 한 때를 보냈고, 메뚜기를 잡기 위해 많은 어린이들이 논두렁과 들녘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냥 좋아했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먹을 간식을 조목조목 쟁겨 주시던 생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10월 7일과 9일에는 <환경마르협회>의 도움으로 양천구청 지하상황실을 빌려 '녹색소비시민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일에는 군포에 있는 (주)두산유리에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이번 교육에 참여하셨던 많은 회원님들께서 천령이 되어 각 가정에서부터 녹색소비를 실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난 달은 '생쓰레기 퇴비화운동 활성화의 달'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1개 단지가 새로 이 운동에 동참하였고 또다른 단지가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24일과 27일에는 퇴비장을 견학하면서 이 운동의 방향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25일에는 양천구 관내에 있는 신목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어머니회와 공동으로 환경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생협의 유기농산물들을 전시·판매하였고, 환경사진과 재활용품 전시,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 비교전시 등을 지부에서 맡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학교들도 학교바자회를 단순한 알뜰장터가 아닌, 어린이들이 보다 넓게 볼 수 있게 하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바뀌어나가기를 바랍니다.

25일에는 몇몇 가족이 어울려서 청계산으로 '가족생태탐사'를 다녀왔습니다. 산기슭을 따라 흘러내리는 작은 개천에서 가재도 잡아보고 도롱뇽도 관찰하였습니다. 가을옷을 입은 산 속에서의 하루,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한 이번 탐사의 추억은 아주 오랫동안 어린이들 가슴 깊이 머물 것입니다.

서서히 기온이 내려갑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이미라 지부 간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999-9221

아이들과 함께 본 역사의 두 모습

서 대문독립공원으로 어린이유적지탐방을 다녀왔던 지난 9월 27일 토요일, 지부 사무실에서는 일본의 여성단체 <겐섬우먼>의 퍼포먼스 '뱀파이어쇼크'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과 함께 독립공원에서 서대문형무소와 서재필 동상을 둘러보며 애국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결코 같지 않은 역사의 두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아도 너무나 작고 어두워 도무지 인간을 가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미국으로 망명한 뒤 미국시민 필립 제이슨이란 이름으로 독립신문을 만들고, 항상 미국 시민을 자칭하며 한일합방 후에는 합방공신으로 인정받은 서재필, 이들을 애국자란 이름으로 독립공원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역사에 대해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적지 탐방에서 돌아온 시간, 지부 사무실에서는 뱀파이어쇼크가 막 시작하는 중이었고, 회원들과 아이들이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뱀파이어에게 물리고 싶다'라는 이해라 선생님의 주장에 우리 모두 공감하며 뱀파이어가 운을 입고 사진도 찍고, 뒷풀이시간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분들과 말이 안 통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잠시, '어머니, 우리랑 사는 게 어쩔 저리 똑같나' 하는 쓸쓸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눈짓 몸짓 그리고 영어, 일본어, 우리말 등이 모두 동원된 대화를 나누며 국적을 떠나 여성은 하나라는 생각을 몸으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동북지부는 '환경을 살리는 요리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전현숙 회원 가족, 변혜원 회원 가족, 이상령·김효순 회원 공동체, 그리고 김미경 회원 가족이 참가했는데, 이상령·김효순 공동체는 재활용상을, 김미경 회원 가족은 감광상을 받아 기쁨이 더했습니다.

그리고 지부에서는 '녹색소비를 실천

을 위한 시민환경교육'을 열었습니다. 나와 사람들과 자연과 우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느낀 만큼 실천하는 것이 녹색소비자라는 유정길씨의 강연도 듣고,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해 점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어보는 10월입니다.

김희정 지부 간사

고양여성민우회
☎ (0344)919-1195

늘 처음같은 마음으로

그 립처럼 파란 하늘, 맑은 호수, 유난히 노란 은행잎, 시를 읊는 게 아니고 정발산 정자에 앉아 바라보는 우리 일산의 풍경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아파트숲조차 아름답게 보이는 요즘, 가을입니다. 우리 고양여성민우회의 10월은 한가로운 주변 풍경과는 달리 무척 바쁜 달이었습니다.

한여름 동안 저조했던 생협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거든요. 우선 새로 나온 생활재의 시식과 재출자 안내를 위해 마련된 공동체별 간담회에 8명의 운영위원 모두가 여기저기 흩어져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월례회도 생협활동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기 위해 서혜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생협을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생협 매출도 올랐으면 좋으련만...

한편, 그동안 진행되었던 우리 회원들의 의회방청활동을 토대로 '의회방청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책이 나올까?' 하는 불안감에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끼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벌써 끝자락을 보이는 달력을 보면서 늘 처음같은 마음으로 생활하자는 다짐을 해 봅니다.

정정희 지부 운영위원

성남여성민우회
☎ (0342)711-9710

미디어운동에 동참합시다

거 실 장식장 위에 주황색 감과 셋노란 모과가 올려졌습니다. 모과의 온온한 향기속에서 우리집에도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들...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인 조정하씨의 '변화하는 비디오 환경과 미디어운동에 대하여'란 강의를 필두로 미디어소모임을 시작해 다음과 같은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약에 따라 미디어의 문은 활짝 열렸고 이로 인해 저질 외국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으며,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선정폭력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비디오 및 컴퓨터를 통한 유흥물의 폭주는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미디어 적용교육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학교 교육으로 제도화하기 전에는 사회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운동이나 유럽의 오픈채널처럼 지역주민들이 해당지역의 유선TV에서 일정시간을 할당받아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방송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군요.

그러나 미디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는 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지로 이사한 이순동 회원의 집에서 가진 첫모임은 다정다감한 이순동 회원과 신입회원들이 만들어낸 화기애애한 분위기 덕에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다스리기」를 교재로 삼아 중요한 내용은 발제를 하면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 모임은 다른 회원분들에게도 열려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대환영입니다. 회원 여러분, 바쁘시죠? 곧 월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운 얼굴, 정다운 얼굴들을 모두 뵙고 싶습니다.

이길량 지부 대표

진주여성민우회
☎ (0591)762-5339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풀어갑시다

민 우회를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시리게 청명한 가을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온통 울긋불긋 채색되어 자태를 뽐내는 산과 들, 좋은 계절에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부모성교육' 강좌를 3주에 걸쳐 마련하게 되었고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영화 '낮은 목소리'도 상영할 계획입니다.

모임을 꾸려놓고 체계를 갖추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 위한 회원들의 열정이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모임을 꾸려가는 회원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하나씩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주변에만 머물기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을 보다 나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마음으로 뭉친 민우회원들 아닙니까. 꾸려진 지 얼마되지 않은 주부소모임 '여울'은 토론을 하기엔 민우회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 다른 장소를 빌려 공부를 하다가 회원들간의 친목도 돈독히 다질 걸 매주 각 가정에서 모여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창립 이전부터 여성학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직장여성반 모임은 공부뿐만 아니라 '일'로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고 성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선희의 모니터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일을 통해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흥분과 기대로 눈빛을 빛내던 직장반 회원 여러분들의 활동이 정말로 믿을직합니다.

나태해지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함께 고민하고 뛰어다니던 우리 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새 날을 여는 진주여성민우회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열정과 관심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서은애 회원

직접 보니 믿음이 갑니다

김 자 현 생활협동사업부장

예전에 비해 품목수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아쉬운 생활재가 몇 개 있다. 그래서 새 품목이 나올 때면 반갑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나는 국산 마른 고사리와 오징어채가 그런 물품 중 하나이다.

특히 오징어채는 남편의 술안주나 아이들 밑반찬용으로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즐겨 먹으면서도 여기에 무슨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에 찝찝했었다.

그런데 생협에 공급되는 오징어채는 인체에 해로운 빙초산, 솔빈산나트륨 등의 탈색제나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가미를 위한 소금, 설탕, 구연산, 호박산, 솔비톨 등을 되도록 적게 쓴다니 무척 반가웠다. 생협에서 공급되는 포도주와 곁들여 먹으면 행복하기까지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스레 그 생산자가 궁금해서 한 번 가보리라 버르던 차에 단풍이 한창인 10월에 <동해식품>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 주문진에 위치한 <동해식품>의 생산자는 40대 후반의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투지가 넘치는 눈매를 가진, 그래서 농촌의 생산자와는 또다른 신뢰를 주는 최정규님이다. 시중에 제품을 출하하다가 92년부터 강릉한살림에 납품을 하면서 생협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생협이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사업가로서 조언을 하시는 걸 보면 생협에 애정이 많은 분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무방부제, 무색소 젓갈을 생산

<동해식품>에서는 우리가 취급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우선 관심이 있는 젓갈의 생산방법을 물어보았다. 젓갈류는 생협의 요구대로 방부제나 색소,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도 맛을 내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다가 어머니의 전래비법을 배워서 적용해 <동해식품> 특유의 양념맛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멸치, 다시마, 무, 조개, 다랑어분말, 생태 등 보통 10여 가지의 재료를 넣고 12시간 이상 끓인 육수에 한살림에서 무농약고추가루와 마늘을 공급받아 양념을 만들어 1개월 혹은 8개월 이상 숙성된 명란과 창란을 버무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방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짧아 생협에서 주문 받은 후에야 생산에 임한다고 한다. 젓갈이 좀 짜다는 평을 받숏드렸더니 무방부제, 무색소로 하기 때문이란단다. 시중 제품은 고당질로 염분의 맛을 희석시킨 것으로 생협젓갈이 오히려 염도가 낮다고 한다.

눈에 좋은 것, 혀에 붙는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대안은 생협밖에 없음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 시장화판에서

는 아무리 값이 싸도 사지 말라고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 반쯤 들어온 것에 다시 색소, 방부제 처리를 해 재유통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이란단다.

공장 옥상에서 오징어채를 말리고 있어서 생협 오징어채와 비교하니 색이 무척 하얗고 연했다. 오징어채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멕시코산 수입 냉동오징어(무척 크고 두껍다)로 우선 물에 담갔다가 기계로 한 번 구워 삭힌 후 잘게 채썰어 여러 가지 분말가미제를 휘저어주며 첨가하게 되는데 많이 문힐수록 스펀지화되어 부드럽게 된다. 그 여러 가지 가미제 중 시중 제품에는 방부제역할을 하는 솔빈산나트륨과 탈색제 역할을 하는 빙초산이 들어간다.

정성으로 맛을 내

생협 오징어채가 색이 누렇게 가끔 질긴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싶으니 다시 한 번 생산자의 정성이 고마웠다.

지난 추석에 선물세트로 인기 있었던 황태는 북해도 감자가 산으로 대관령덕장에서 서너 개월 자연건조시켜 나오고 복어채용은 기계로 냉풍건조시켜 강제로 수분을 제거하기에 조금 껌딱하다.

국내산 명태는 생태로 나가기도 모자라 가공은 거의 생각을 못한다고 한다.

<동해식품>의 제품은 수협에도 납품되는데 생협제품과는 약간씩 다르다. 생협에 공급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 젓갈류에는 시중 제품에도 방부제와 색소를 사용하지 않지만 건어물 가공품류도 그렇게 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한다. 양식에 걸리기는 하지만 이용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상 어쩔 수 없단다. 실제로 함께 둘러보러 간 수협매장에서 내가 취치 포를 사려고 하자 점장 모르게 사지 말라고 눈짓을 한다. 조미된 것일수록 첨가물덩어리라며 아이가 아예 맛을 들이지 않도록 하라니 생선포를 즐기는 남편이 걱정되었다.

회원들이 젓갈 소포장을 원하지만 한살림과 생협에 납품하는 양이 전체 생산량의 20%에도 못미쳐 당장은 어렵지만 건본을 만들어보고 있으니 조만간에 소포장 제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현오징어와 제철생선류 등을 생협회원들에게 공급해보고 싶다는 다양한 사업적 포부와 계획을 듣고 어민들의 경제적 수익증가를 위해 애쓰고 골몰하는 생산자분의 인정많은 얼굴을 보면서 한편으론 한숨을 작게 내쉬고 다른 한편으론 더욱더 열심히 회원을 확대하고 좋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

김장용 젓갈 미리 준비하세요

- ▶ 새우오젓 2kg/12,000원 • 멸치액젓 2kg/6,000원
- 멸치액젓 0.9 / 3,000원 • 멸치육젓 2kg/4,500원
- 황석어젓 2kg/5,000원 • 까나리액젓(골드) 0.9 / 4,100원

• 생산지: 전남 신안군 임자도 마하담(유억근), 서천 해인수산
• 특징: 남서해안 근해에서 어획하여 질 좋은 소금으로 굴숙에서 6개월 이상 저온숙성시킨 것으로 맛이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 11월 3일부터 공급합니다.

▶ 돌미역 250g/7,000원

• 생산지: 거제군 다대교회 한울타리공동체
• 특징: 거제군 해금강 지역 바다 깊숙한 돌에서 자생하는 것을 해녀들이 채취한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 97년산 햇미역으로 공급합니다.

▶ 쌍화차 10봉/22,000원

• 생산지: 용래당
• 내용물: 황정, 계피, 황기, 숙지황, 당귀, 천궁, 작약, 갈근, 양강, 대추, 감초
• 작년보다 3,000원 인하한 가격입니다. 차로 달여 드시거나 진하게 달이면 감기나 몸살에 효과가 있습니다.

▶ 신고배 1상자(5kg)/17,500원

• 생산지: 양평 미디안농장
• 생산과정: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저농약 배입니다.



▶ 잣 1병(220g)/10,000원

• 생산지: 포천농협
• 97년 국내산 햇잣으로 병포장입니다.



▶ 아침찰떡 350g/3,000원

• 생산지: 화성한과
• 무농약현미찰쌀로 만든 것과 수수와 현미찰쌀을 반씩 섞어서 만든 것, 찰조와 현미찰쌀을 반씩 섞어서 만든 찰떡 3가지를 포장하였습니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 인절미 300g/3,000원

• 생산지: 화성한과
• 생산과정: 무농약찰쌀로 만들어 국산콩가루를 묻혔습니다. 산지사정에 따라 서리태, 검정깨 등 다양한 고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썬가래떡 1kg/4,000원

• 생산지: 민우회 생협
• 생산과정: 무농약백미로 만들었습니다.

▶ 가공돈가스 500g/4,300원

• 생산지: 우주골식품
• 생산과정: 돼지고기 등심 부위를 우리밀 빵가루로 가공하였습니다.



▶ 구이김 20장/2,500원

• 생산지: 화성한과
• 생협 참김에 미강유와 들기름을 8:2로 섞어 바르고, 마하담의 붉은소금을 뿌려서 구웠습니다.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회원수, 매출액, 출자금 현황



회원수

2,713명



매출액

102,988,660원



출자금

87,825,402원

9월 공동체별 매출순위

순위	공동체(봉사자)	매출금액
1	민우회 본부 정은숙	1,884,300
2	중계동 시영아파트 108동 김윤정	1,811,100
3	은평 구산중학교 윤미경	1,645,500
4	낙성대 교수아파트 가동 윤옥주	1,543,700
5	상계동 주공아파트 허해숙	1,368,600
6	은평 여성개발원 윤미혜	1,362,500
7	쌍문동 한양아파트 604동 이경미	1,227,300
8	강북 수유2동 김성애	1,118,600
9	은평 녹번사회복지관 서정희	1,086,500
10	강남 포이동 그린빌라 최영혜	1,072,700

합성수지봉투 사용감소를 위한 시민토론회

장을 한 번 보고나면 비닐봉투가 그득히 쌓여곤 합니다. 색은 비닐이 있다고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야 분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땅의 숨통을 조이는 비닐로 인한 공해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외출할 때 잊지 않고 챙기는 장바구니가 환경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장바구니의 이용을 보다 확산할 방안도 찾아보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제안을 기다립니다.

▶발제

쓰레기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 합성수지봉투를 중심으로
합성수지봉투 사용감소를 위한 시민운동

▶때: 1997년 11월 25일(화) 오후 2:00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문의: ☎269-5763 김형태

민우회 유자차 만들러 오세요

민우회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겨우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민우회 유자차.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민우회 유자차를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 올해에도 어김없이 만들어집니다. 본부 사무실에 자주 오시는 분, 본부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 그리고 노련한 솜씨로 유자껍질을 얇게 채썰 자신이 있는 분들께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힘든 만큼 보람도 무척 크답니다.

▶때: 11월 17일~19일

▶곳: 민우회 본부 사무실

▶문의: ☎269-5763

15대 대통령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

범여성계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정운영 능력을 따져 보는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가 여성신문사 주최로 열립니다. KBS-2TV로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생중계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자질을 점검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3일: 조순 민주당 후보

11월 4일: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11월 6일: 이인제 가칭 국민신당 후보

11월 7일: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

김장용 채소 주문받습니다

올해 김장은 11월 29일(토), 30일(일) 양일간에 걸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한파로 인해 배추가 얼어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던 경험과 올해 기상변화로 추위가 일찍 온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작년보다 1주일 앞당겼습니다. 10월 27일(월)부터 11월 7일(금)까지 2주간 예약받습니다.

▶통배추 1묶음(3포기)/2,900원

▶절인배추 1묶음(5포기)/7,500원

※통배추는 7묶음 이상, 절인 배추는 2묶음 이상 주문하셔야 공급합니다.

▶무 1개/600원

▶대파 1kg/1,400원

▶갓 1kg/1,300원

▶생강 400g/3,800원

▶쪽파 500g/1,300원

※가격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생산지: 홍성 풀무생협

· 생산과정: 무농약유기농법재배

· 특징: 배추의 품종은 노랑배추입니다. 노랑배추는 보통 속이 덜 차는데 그래도 당도가 높고 맛이 아주 고소합니다.

· 3년째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581-1675 생활협동사업부

김장김치도 생협이 좋습니다

11월 21일까지 홍성에서 유기농배추와 유기농양념을 가지고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예약받아 12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1주일간만 공급합니다.

▶배추김치 5kg/25,000원

▶깍두기 5kg/19,000원

▶문의: ☎581-1675 생활협동사업부

윤정숙 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민우회 사무국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출연 영국으로 여성학을 공부하러 떠났던 윤정숙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원기왕성(!)한 모습으로 돌아온 윤정숙님이 신임 사무처장으로서 민우회에 돌아왔습니다. 떠나있었던 시간만큼 민우회에 대한 애정도 깊어진 듯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실무자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생협에서 구매를 담당할 박애심(35세)님을 소개합니다. 두 딸을 둔 주부이니 생활재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겠지요. 벌써부터 믿음이 갑니다.

여남고용평등을 위한 하루주점이 열립니다

민우회 여성노동센터에서는 여남고용평등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하루주점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는 남과 여,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때: 11월 22일(토) 오후 1:00~10:30

▶곳: 종로1가 파노라마

▶문의: ☎277-7883 여성노동센터